

로봇의 습격과 60년 시급제의 종말



한 용 수 의
돌직구

1967년 창업 이래 현대자동차 공장의 시계는 늘 ‘시간’을 담보로 굴러갔다. 더 많은 시간 공장을 돌리고, 밤을 새워 잔업과 특근을 할수록 근로자의 지갑은 두꺼워졌고 회사는 성장했다. 이른바 ‘시간-임금 연동형’ 시급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끈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 노사는 이 반세기 넘은 관행을 깨고 ‘완전 월급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건 인간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기반의 자동화 기술이 등장하면서다. 노조는 직감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이 인간의 야근과 특근 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이는 곧 노동시간 감소와 임금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다. 근로자들은 로봇에게 야근을 빼앗기느니, 고정된 월급으로 소득을 방어하겠다는

계산을 했을 법하다.

이번 시급제 폐지 요구는 노동계의 패러다임이 더 많은 노동을 통한 고수익에서 기술 고용 불안에 대응하는 소득 안정성 확보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사측 역시 미래차 공정 전환 과정에서 현장 생산직의 거센 저항 없이 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으로 이를 전향적으로 바라보는 듯 하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도 정반대의 모습도 포착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15일까지 사흘간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조기 퇴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시간을 고정하는 월급제를 요구하면서도, 노동시간을 무기로 회사의 역대급 실적을 이유로 ‘순이익의 30% 성과급’,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성 보전이나 직무 전환이라는 책임은 회피한 채, 하락할지 모르는 미래 소득(월급제)을 모두 챙기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압박을 달래기 위해 월급제를 갈등 봉합용 카드로 타협할 태세다. 완성차 본사 직원이 일은 덜 하고 안정적인 고액 월급을 받는 구조가 안착하면, 그비용 부담과 납기 압박은 고스란히 시급제에 묶여 있는 1·2차 부품 협력사로 전가될 수 있

다. 결국 대기업 노사가 상생을 외치는 사이, 자동차 생태계 하부의 노동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울 좋은 월급제 안착이 아닌, 파업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사가 임금 체계의 근본을 뜯어고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단순히 근로 시간만 월 단위로 묶는 월급제는 공장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연차가 쌓이면 무조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어떤 공정을 맡았는지, 공정 효율은 얼마나 높였는지를 반영하는 임금 구조 개편도 동반돼야 한다. 생산직 노동자를 단순 조립공에 머물게 해서는 월급제를 유지할 수 없다.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사측은 AI 제어, 로봇 유지보수 등 미래차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노조는 기술 변화에 따른 부서 간 인력 전환배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장에 인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로봇의 가동시간이 늘어나는 시대, 현대차 노사의 완전 월급제 실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단순히 ‘돈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노사관계의 문법 자체를 혁신해야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hys@metroseoul.co.kr

주식도 ‘모 아니면 도’



김지수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모 아니면 도.”

웃관에서나 어울릴 법한 이 말이 요즘 국내 증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됐다. 기업의 실적보다 하루 변동폭이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장기 투자보다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키워주는 상품에 자금이 몰린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공간에서 변동성에 베팅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최근 1년 새 260% 이상 치솟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최고치였던 48.55를 뛰어 넘어 지난달 29일에는 96.94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지난 5월 도입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있다. 국내 증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심한 시장이다. 여기에 두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까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은 더욱 빠르게 집중됐다. 지난 10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0조1157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31조9757억원)의 31.6%를 차지했다.

쏠림이 커질수록 시장의 진폭도 함께 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지난 5월 27일 이후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24차례 발동됐다. 올해 전체 발동 횟수는 35회로 지난해 연간 3회의 10배를 웃돌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보다도 잦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시장의 일상이 됐다는 의미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의 분위기다. 어느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는지보다

오늘 얼마나 크게 오를지가 더 중요해졌다.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보다 베팅이 더 쉽다는 말도 나온다. 수익이 나면 실력이고 손실이 나면 운이 없었다고 여기는 분위기는 투자보다 도박 심리에 더 가깝다.

물론 모든 책임을 투자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투자 선택권을 넓혀줬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했다. 하지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특정 종목 쏠림을 더욱 키우지는 않을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모 아니면 도’라는 말은 웃음꽃에서는 웃으며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증시에서는 누군가의 노후자금이고, 누군가가 평생 모은 자산이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잃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돈만이 아니다. 오랜 숙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도 전에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godhe@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5일 (음 6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때는 반드시 옵니다. 60년생 억지로 밀어부치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세요. 72년생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세요. 84년생 욕심을 부리면 될 일도 안됩니다.



49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61년생 무리한 목표는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3년생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무난한 하루입니다. 8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50년생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62년생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까. 74년생 양보하면 갑니다. 86년생 뒷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1년생 주위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습니다. 63년생 자만하지 마세요. 75년생 방심하면 큰 화를 입습니다. 87년생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52년생 건강이 걱정됩니다. 64년생 괴로움 끝에 초지를 관철하면 좋은 수가 생깁니다. 76년생 나쁜습관으로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88년생 감정을 통제하고 재능을 보이지 마세요.



53년생 귀하게는 파란색이 참 잘 어울립니다. 65년생 대인관계에 있어서 작은 마찰이 생깁니다. 77년생 건강증을 주의하세요. 89년생 술자리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54년생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66년생 친근하게 만나는 이성에게 연락해 보세요. 78년생 오늘은 일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90년생 근교로 여행을 떠나세요.



55년생 매사에 최선을 다하세요. 결과가 기대됩니다. 67년생 걱정했던 일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79년생 오랜만에 돈맛을 봅니다. 90년생 뜻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옵니다.



56년생 투기 사업에 손대지 말고 저축하세요. 68년생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신중히 행동하세요. 80년생 북방향이 갑니다. 92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57년생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69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1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줍니다. 93년생 그외의 일에서도 운이 따릅니다.



58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갑니다. 70년생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82년생 직장문제도 점차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94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59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될것입니다. 71년생 유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3년생 뒷물이 많으면 앞물이 맑습니다. 95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냅니다.



김상회의四季 동기감응(同氣感應)

천지감응이 인간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정신적 질서라 한다면 지구 내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기운의 작용인 동기감응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영웅호걸이나 큰 인물이 날 때마다 사람들은 제사를 잘 모시고 조상 묘를 잘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통 개인들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조상 묘를 잘못 써서 그런가? 하는 소리를 하기도 하지 않던가. 천지가 상통하거나 감응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기운이 서로를 움직인다는 인식 아래서 우리 인간들이 머리로는 하늘을 이고 발로는 땅을 딛고 살기에 땅의 기운인 지기(地氣)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고 있다는 ‘동기감응’을 생각한다. 특히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풍수지리는 오랜 세월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음택 풍수로서 장묘 풍수에서는 조상과 같은 DNA를 공유하고 유전 받는 후손은 조상의 기운에 감응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선거철만 되면 유력 후보자가 조상 묘를 이전했다는 등의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조선말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왕위에 오른 고종도 원래는 왕위 순번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할아버지를 명당으로 이장한 후에 태어나 조상의 왕기를 받았기에 왕위에 오른 것이라는 담화도 전하며, 태조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인 화안대군은 1차 왕자의 난 중에 공을 세웠으나, 손아래 동생인 이방원과 충돌한 2차 왕자의 난에서 패배하여 이방원이 태종에 오른다. 그후 화안대군이 죽고 묘를 쓴 곳이 제왕지자라고 지사가 보고하자 태종이 대노하며 왕기를 없애기 위해 무덤 뒤의 능선을 잘라버렸다는 일화도 있으며 실제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파는 물보다 진하다는 서사가 있듯 같은 파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므로 몸은 사라져도 의식은 최소한 2백년 정도의 시간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구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5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스도쿠3650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2	1	2	8	7	9	9	8
9	7	6	9	2	6	2	1	8
9	2	8	1	8	9	7	2	6
2	8	9	2	9	1	8	6	7
8	9	6	7	9	8	1	2	2
2	1	7	8	6	8	9	9	2
1	8	9	2	7	2	6	8	9
7	6	2	8	1	9	2	8	9
8	9	9	6	2	2	8	7	1

8	7	1	9	2	9	6	8	2
8	2	9	8	1	6	2	7	9
9	6	2	2	8	7	1	8	9
2	8	6	9	2	1	7	9	8
9	9	2	7	8	2	8	1	6
1	8	7	6	9	9	2	2	8
7	1	8	2	9	8	9	6	2
6	9	9	8	7	2	8	2	1
2	2	8	1	6	8	9	7	8